1. Short “interface review” for voice intelligent assistants.

삼성 빅스비에 대한 리뷰.

갤럭시 S8 이전에도 음성인식 앱인 S보이스는 존재했다. 물론 음성 인식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대다수의 기능들은 음성인식 앱을 사용하는 것 보다 직접 키는게 훨씬 더 편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

S8부터 탑재된 빅스비는 옛날보다는 똑똑하다고 알려져있다. “갤러리에서 특정 장소에서 찍은 사진 찾아줘”, “메시지에서 가장 최근에 받은 문자 보여줘” 등의 명령도 실행 가능하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실험실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인 기능들도 있다. 물론 아직 음성으로 전자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물론 본인만 해도 손으로 조작하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졌기도 하거니와, 기계에게 사람과 대화하듯이 말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빅스비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쓰다보면 꽤 편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자다 일어나서 움직이기 귀찮을 때 입만 움직이면 되니 편하다거나 하는 등. 하지만 빅스비는 이어폰에 연결 된 마이크로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말인즉슨,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아직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해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빅스비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점점 더 똑똑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잘 알아듣던 명령도 가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사람들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사용할 때마다 어딘가 쓸 수 있는 포인트나 경험치를 주는 이벤트도 한다고 한다. 음성 버전은 여성 버전 2가지, 남성 버전 1가지가 존재한다. 취향에 맞게 사용하면 될 듯. 음성 호출 기능도 있는데, ‘하이 빅스비’ 라고 부르면 빅스비가 작동된다고 한다.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한다고 하는데, 반응하지 않을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할때도 꽤 있다고 한다.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음성인식 기술은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은듯.

내가 상상하는 인공지능 비서의 수준은 꽤 높다. “내가 오늘 점심에 뭘 먹어야 할까?” 같은 질문에 웹에서 오늘 사람들이 많이 먹은 음식을 추천 해 준다거나 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최근 식단을 모두 꿰고 사용자의 몸 상태에 최적화된 식사를 추천 해 주는 정도는 되어야 인간 비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다. 물론 인간 비서도 가능은 하겠지만, 인공지능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정도 기술의 수준은 인공지능 비서만의 기술을 넘어 사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억하고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계와 거의 하나가 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 퍼져있는 모든 지식들을 갖고 있고, 빠르게 그 지식들을 응용하고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더 편한 삶을 제공해 주는 인공지능. 그런데 걱정되는 한가지는 이렇게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모든 삶을 기계가 알게 된다면, 사실상 감시당하는 것과 다른게 없지 않을까? 인공지능을 만든 기업에서는 사용자의 모든 일상생활 정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그들만 아는 것이다. 기술이 이정도로 발전하게 된다면, 자신의 생활이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싫은 사람들은 점점 이런 기술들에서 멀어지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지 않을까.

AI는 결국에는 인간 생활의 모든 곳에 적용되게 될 것이다. 현재 열심히 발전중인 비서 기능 뿐 아니라, 집안의 가전제품 하나하나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갈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사회. 그때가 되면 인간은 자신들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1. Write a short “interface review” for the travel planning web sites.

Between Expedia.com & Hotels.com

Expedia.com

첫 화면에 출발지, 목적지, 출발날짜, 돌아오는 날짜, 인원수/방수 선택 화면이 있다. 항공편, 호텔, 번들상품, 자동차, 크루즈 등 다양한 수단들이 바로 화면에 나와 있어 한눈에 무엇이 가능한지 바로 알 수 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오늘의 인기 여행지’, ‘오늘의 최고 상품’ 등을 3개씩 정도 알려준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입력하여 결과 화면으로 들어가면, 추천 상품들만 나열되어 있다.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자세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나보다. 그래도 비행편과 호텔을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다는 것은 expedia.com 의 장점.

Hotels.com

사이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숙박 예약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사이트이다. 첫 화면에서는 지역, 체크인, 체크아웃, 객실/인원수를 선택할 수 있다. Expedia보다는 숙박 쪽에만 집중한 서비스로서, 기능이 다양하지는 않음. Hotels.com 은 사용자들이 숙박 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한다. Hotes.com 측에서 직접 등록 해 놓은 숙박시설 뿐 아니라, 더 다양한 숙박시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능.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인기 도시의 특가 상품 개수를 보여준다. 도시를 클릭하면 위의 조건들을 검색하는 창이 나옴.

조건들을 모두 입력하여 검색하면, 결과가 나열되어 나오는데, 좌측에 여러 필터링 조건들이 많이 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 숙박 한 종류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자세한 검색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나 보다.